

## 모음의 조음

이 현복 (서울대 언어학과)

### 1. 자음과 모음의 분류

모음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자음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음과 모음의 분류기준에 대해 언급하겠다.

D.Jones도 말했듯이 모든 말소리는 자음이나 모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음성 분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음과 모음의 분류이다. 어떤 소리가 자음인가 모음인가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기준에는 조음적 기준, 청각적 기준, 맥락적 기준(contextual criteria)의 셋이 있다. 이 세가지 기준은, 이중 어느 하나만으로 독립해서 작용한다기 보다 상호보완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있다. 이는 각각의 약점과 한계성때문이다. 오늘날 음향기기 및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는 위의 기준에 보태어 음향적 기준을 하나 더 설정할 필요도 생겼다.

먼저 조음적 기준을 살펴보자. 이 기준은 음성의 조음에 있어서, 성대를 지난 기류가 인두나 구강 또는 비강에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않고 자유로이 흘러가는 소리를 모음으로,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기류가 어떤 장애를 받는 소리를 자음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기류(air stream)는 일반적으로 언어음에서 사용되는 폐장날숨기류(pulmonic air stream)체계로 대표해서 생각하기로 하자.

그러나 이와 같은 기류의 장애(obstruction) 여부에 따른 자모의 분류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 기준에 의한다면 [i]를 자음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Kenyon은 [i]의 조음에 있어서 혀의 접촉 범위는 [l]의 그것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청각적 기준을 보자. 여기에는 두가지 설이 있는데 첫번째는, 모음은 자음보다 울림도(sonority)가 크며 더 공명적인(resonant) 소리라고 하는 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이라면 마찰적 조음이 없는 [l],[i],[u] 중 어느 것이 울림도가 더 큰가 결정하기 힘들며, 또한 무성화된 모음은 울림도가 작다. 따라서 울림도가 모음과 자음을 구분하는 근거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알 것이다. 청각적 기준의 두번째 것은 마찰(friction)이다. 조음과정에 있어서 어떤 장애를 받는 소리는 청각적으로 느껴지는 마찰을 야기시키는데, 이러한 마찰이 큰 것이 자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모음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예외를 동반한다. 즉 [m],[n],[l]등은 청각적으로 마찰을 수반한다고 생

각되지 않으나 자음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기준인 맥락적 기준은 어떤 말소리에 대한 주변소리와의 '관계'에서 정의될 수 있다. 어떤 한 소리는 그 주변소리(context)와의 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아 본래의 조음적 / 음향적 본성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맥락적 기준은 어떤 음성의 조음적 또는 음향학적 성질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성의 분포상의 성질에 의해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 맥락적 기준에는 음성이 음절내에서 기능하는 방식에 의한 것과 음소로서 작용하는 방식에 의한 것 두가지가 있다.

Stetson은 첫번째 기준(즉 음절 내에서의 기능)에 의하여 음성을 모음과 자음으로 분류하려 하였는데 음절의 주음은 모음이며, 부(副)음은 자음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영어의 botton의 n은 음절의 주음인데 자음으로 분류되므로 이 학설에도 여전히 모순점이 있다.

두번째의 설(음소로서의 기능)은 어떤 음성이 모음이나 자음이나 하는 것을 그 음성의 분포상, 음성학상의 이유로 보아 상대적 세기나 장단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설이다. 다시 말하면, 그 분포상 전후 음성보다 약하거나 짧게 발음되면 자음으로 간주하고 그 반대이면 모음으로 간주한다는 설이다. 이 설에 따르면, 모음[j]와 [w]는 그에 인접한 모음보다 약하게 발음되어 종종 자음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wet[wet]에서 [w]가 그 다음 모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돌돌리지 않아 자음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음향기기의 발달과 컴퓨터의 발달은 음성의 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즉 듣는 음성에서 보는(visual)음성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성의 분절(segmentation)을 통해 그 길이와 세기, 그리고 높이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엔 2.5초 동안의 analog 신호만 스펙트로그램으로 출력하여 포만트(formant)를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컴퓨터의 처리용량에 따라 그 시간을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음향적 기술의 발달로 자음과 모음의 분류기준에 이제는 음향적 시각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모음은 스펙트로그램에서 두개 이상의 뚜렷한 포만트를 갖고 파형신호(wave signal)에서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자음은 불규칙적인 진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스펙트로그램이나 파형신호 등의 정보를 통해서도 엄격하게 모음과 자음을 구별할 수 있지는 못하다. [m],[n],[l],[r] 등의 비음 및 유음(liquid)은 포만트가 어느 정도 나타나며 상당히 규칙적인 파형신호를 보여준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상의 기준들은 상호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모음과 자음을 분화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 2. 모음의 특성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의 분류기준을 통해서 자음과 모음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간략하게 모음과 자음을 말해보자면 모음이란 성대를 지난 기류가 인두나 구강 또는 비강에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흘러가는 소리이며 그와 반대로 자음은 중간에서 어떤 장애를 받는 소리이다. 자음은 보통 입 속의 어떤 점에 장애가 있어서 쉽게 위치를 느끼고 확신할 수 있으나, 모음의 경우 입 속에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않아 소리의 경계가 분명치 않고 조음점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더 어렵다. 다시말해 모음은 혀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 음색(timbre)이 달라지긴 하지만 입속에서는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는다. 입이란 혀의 위치를 바꿀 때마다 공기가 나가는 관의 모양이 변하며(한 쪽이 막힌 통구조;클라리넷과 같은 관악기를 연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관의 모양이 변함에 따라 공명(resonance)의 양상이 달라져서 그 음색도 바뀌는 것이다.

### 2.1 모음의 분류기준

보통 모음은 다음의 세 가지의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첫째는 혀가 입천장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혀의 높이(tongue height)’이며, 둘째는 ‘혀의 위치(tongue position)’ 즉 입천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혀의 부분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며, 셋째는 ‘입술의 모양(lip shape;roundness)’ 즉 원순이나 평순이나하는 것이다.

첫째, 혀의 높이는 흔히 턱이 열린 정도를 보고 알 수 있다. 열린 턱은 혀의 높이가 낮음을 암시하고 반면에 좁혀진 턱은 천장에 혀가 가까이 있음을 말해준다.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까지 혀의 표면을 입천장에 접근시키고 발음하는 모음을 폐모음(closed vowel), 혹은 고모음(high vowel)이라고 부른다. 국어에는 [i],[ɨ],[ɯ] 세개의 폐모음이 있다. 이에 반하여 [ɐ],[a]는 턱을 아래로 내려서 혀와 입천장 사이를 넓게 벌리고 발음하는 개모음(open vowel), 혹은 저모음(low vowel)이다. 혀의 높이가 폐모음보다는 낮고 개모음보다는 높은 모음을 ‘반폐(half closed)’, 혹은 ‘반개(half open)’모음이라 부른다. 국어의 [ɕ],[ɞ],[ɔ] 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혀의 전후위치와 관련해보자. 폐모음 [i]를 발음할 때 혀의 앞부분, 즉 전설부분을 치조(alveolar)가까이에 접근시키며, 같은 폐모음인 [ɯ]를 발음할 때는 혀의 뒷 부분, 즉 후설부분을 연구개에 접근시킨다. 전자를 전설폐모음이라 부르고, 후자를 후설폐모음이라 부른다. 폐모음 [ɨ]는 혀의 중간 부분을 입천장에 접근시키고 발음하기 때문에 중설폐모음이라 부른다.

셋째, 입술의 모양을 고려한다고 했다. 혀의 높이와 위치는 모음의 기본적인 뼈대를 제공해 주지만, 그 정확한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모양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ʔ]를 발음할 때는 입술의 모양이 둥글어지는데 반하여, [ɪ]의 경우에는 입술의 양끝을 뒤로 약간 당기고 발음한다. 전자와 같이 입술모양을 둥글게 하고 발음하는 모음을 원순모음, 후자와 같이 입술을 펴고 발음하는 모음을 평순모음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후설모음은 원순모음이며, 후설모음이 아닌 모음은 평순모음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2.2 이중모음(diphthong)

모음을 발음할 때에 처음과 끝의 소리값에 차이가 없고 일정한 소리값을 지나는 모음을 ‘단순모음’이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말 [ㅑ, ㅕ, ㅛ, ㅠ], [나, 거, 내, 제] 그리고 영어의 [ei, au]등처럼 시작과 끝의 소리값이 다른 모음들이 있다. 이처럼 시작과 끝의 소리값이 다른 모음 즉 조음이 모음사각도의 한 위치에서 시작되어 어떤 다른 위치에서 끝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 부른다. 혀와 입술의 움직임의 살펴보면, 첫째, 공깃길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움직이든지, 그 반대로 큰데서 작은 데로 움직이게 되든지, 혹은 같은 공깃길 사이로 움직이게 되고, 둘째, 입술을 둥근데서 둥글지 않게 되든지, 둥글지 않은 데서 둥글게 된다.

이중모음은 단순모음과 같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음절핵’이 된다. 즉 하나의 이중모음은 하나의 음절을 이룰 뿐이다. 그러므로, 이중모음은 처음의 요소와 끝의 요소가 같은 음량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의 어느 한 쪽이 더 우세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중모음은 대체로 대각선 이중모음, 수직이중모음, 그리고 중앙이중모음의 세가지로 분류된다.

## 2.3 반모음(전이음; semi-vowel, glides)

전이음(glide)은 혀를 인접해 있는 더 두드러진 모음으로 향하거나 그 모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때 나는 소리이다. 이 소리를 흔히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소리를 조음할 때, 가장 높은 모음을 낼 때 보다 구강의 수축정도는 크지만 마찰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모음과 같은 음성적 특성을 가졌으며 다만 짧고 약하며 불안정한 속성을 가진 [j],[w]등의 소리를 반모음이라 한다.

우리말 ‘교역’, 영어 you[ju:]에서의 반모음 [j]는 모음 [i]와 마찬가지로 경구개 폐모음의 위치 부근에서 나는 반모음이므로 ‘경구개 반모음’이라고 부른다.

우리말 ‘관광’, 영어 way[wei]에서 나타나는 반모음 [w]는 모음 [u]와 같이 연구개 폐모음의 위치 부근에서 나므로 ‘연구개 반모음’이라 부른다. [w]는 원순을 갖는 것이 특징

이다.

이상의 예들은 한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서 나는 전이음으로 'on glide'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영어의 how[haw]와 같이 한 소리의 뒤에서 나는 전이음을 'off glide'라 한다.

## 2.4 모음 음색의 변화

위에서 언급한 혀의 높이, 혀의 위치, 입술의 둥근 정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만으로 모음의 음색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 홀소리의 음색을 결정하는데 관여한다.

### 1) 비음화(nasalization)

공기를 입과 코로 동시에 통하게 하여, 입안 뿐 아니라, 코안도 공명에 관여하게 하는 것을 '비음화'라 한다. 프랑스말에 비음화된 모음이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2) 권설음화(retroflexion)

일반적인 홀소리를 낼 때에는 혀끝은 능동적이 아니어서, 아랫니 뒤쪽, 또는 아랫잇몸에 가볍게 붙어 있게 된다. 그러나 혀 끝을 윗잇몸 또는 센입천장 쪽으로 말아 올리면서 모음을 발음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조음법을 모음의 권설음화라 한다.

### 3) 된소리 모음(tensed vowel)

영어의 do의 모음과, 프랑스말의 doux의 홀소리는 다 같은 [u]로 표기될 수 있으나, 이 두 언어의 모음의 발음방법은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곧 영어의 홀소리에 비하면 프랑스말의 홀소리는 음성기관, 특히 혀의 근육이 더 긴장되는 것이다. 이는 tense와 lax의 대립에 기인한다.

## 2.5 기본모음

자음 조음에 있어서는, 능동부(혀)가 고정부(혀를 제외한 입안의 여타부분)에 가붙거나, 거의 붙을 정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조음부의 위치를 비교적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음에 있어서는 혀의 표면(능동부)과 입천장(고정부)과의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그 능동부와 고정부의 거리를 공간의 어느 점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음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혀의 자리가 비교적 고

정될 수 있는 소리를 미리 결정하여, 실지의 말소리를 이와 서로 대조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홀소리 기술방법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 D.Jones의 '기본모음(cardinal vowel)'이다. 기본모음에는 1차기본모음 8개와 2차 기본모음 7개가 있다.

### 2.5.1 1차 기본모음

기본모음 제 1번은 인간이 낼 수 있는 모음 중에서 혀의 위치가 가장 높고 앞에서 나는 소리이다. 다시 말하면 모음의 성격을 잃지 않는(즉, 마찰음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려서 내는 소리이다. 이때에 입술은 퍼져 있고 이는 거의 닿을 정도로 서로 접근해 있다. 기본모음 1번의 음성 기호는 [i]이다.

모음영역에서 제 1번과 정반대 위치에 있는 소리를 기본모음 제 5번[a]으로 정하는데, 이는 가장 열리고 가장 뒤에서 나는 모음이다. 다시 말하면 모음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후설을 가장 낮추고 가장 후퇴시켜서 내는 모음인데, 입술은 원순화되지 않으며 턱은 완전히 열려 있다.

기본모음 제 2,3,4번(기호는 [e],[ɛ],[a])은 [i]와 [a]사이에 있는 전설모음으로서 서로 청각적으로 등거리에 있도록 정한 모음들이다.

기본모음 제 6,7,8번(기호는 [ɔ],[o],[u])은 원순이 들어 있는 후설모음이다. 이들도 다른 기본 모음들과 청각적으로 등거리를 이루도록 [i-e-ɛ-a-a-ɔ-o-u] 정하였다.

[ɔ]의 입술모습은 열린 원순(open rounded), [o]는 닫힌 원순, 그리고 [u]는 더욱 심하게 닫힌 원순으로 발음된다.

지금까지 기술한 8개의 일차(primary)기본모음은 음성학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모음사각도의 바탕이 된다(아래의 그림 참조). 모음사각도는 입안에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실제로 모음도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도식화한 것이다(그러나, 모음도 위에 음가를 표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음적인 기준보다는 청각적인 기준에 따른다.)

### 2.5.2 2차 기본모음

1차 기본모음이 많은 언어에 흔히 나타나는 것들인데 반해, 제2차 기본 모음은 좀 덜 쓰이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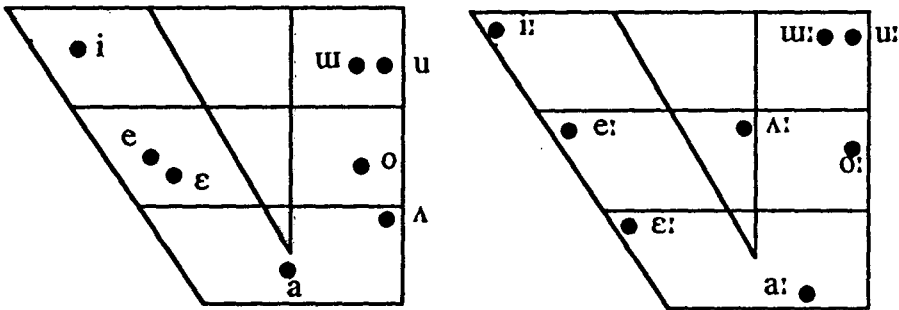
전설원순모음으로서 [y,ø,œ] 세 음만을 설정하고, 가장 큰 입벌림의 자리에는 -로 표시한 것은 [a]에 대한 원순모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소리를 쓰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후설평순모음인 [ʌ,ɤ,ɯ]와 후설원순모음인 [ɨ]는 드물게 쓰인다.



## 3. 한국어의 모음

## 3.1 홀홀소리(단모음)

한국어 표준말의 홀홀소리는 학자에 따라 홀홀소리 8개 내지 9개와, 겹홀소리 12개로 나뉜다. 필자는 현대 한국어의 홀홀소리를 여덟개로 보나 여기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8 개의 기본적인 홀홀소리 이외에 /외/ 도 홀홀소리로 설명하겠다. 홀홀소리의 소리값은 표준말 지역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며, 음의 세기, 길이 그리고 앞뒤에 오는 소리 등의 음성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한국어 모음도 (Journal of I.P.A. v.23 no.1 1993)

홀홀소리의 소리값은 국제 음성학 협회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에서 제정한 “기본모음”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하는 것이 정밀하고 편리하다.

## 3.1.1 홀홀소리 /이/ (= i)

/이 /는 앞혀를 센입천장으로 올려서 내는 ‘앞혀, 닫힌, 퍼진 입술, 홀홀소리 (전설평순폐모음)’이다. 소리환경에 따라 길고 세게 나는 /이:/ 는 혀의 긴장이 있으며, 짧고 세게 나는 /이 /와 약하게 나는 /이 /는 혀에 긴장이 없는 홀홀소리이다. 잇몸이나 센 입천장 앞쪽 닿소리 /ㄴ, ㄷ, ㄱ, ㅅ, ㅆ, ㅈ, ㅊ, ㅌ, ㄹ/ 나 반홀소리 /j / 가 선행할 때에는 /이/ 홀홀소리의 음가가 일반적으로 더 높아 진다.



- 보기: 1) 긴 /이:/ -> 이발 /'이:발/, 시장 /'시:장/  
 2) 짧은 /이/ -> 김치 /'김치 /, 이 날 /이'날 /

### 3.1.2 훌훌소리 /에 / (= e )

/에 /는 앞혀를 센입천장으로 향하여 올려서 내는 ‘앞혀, 반닫힌, 퍼진입술, 훌훌소리 (전설평순반폐모음)’이다. 소리환경에 따라 길고 세게 나는 /'에:/는 기본모음 [e]보다 약간 낮고 후퇴한 소리이며, 짧고 세게 나는 /'에/는 /'에:/보다 낮으며, 약한 /에 /는 기본홀소리 [ɛ] 보다 높고 후퇴한 홀소리이다. 잇몸이나 뒷잇몸 또는 센입천장 앞쪽 닿소리 /ㄴ, ㄷ, ㄸ, ㅅ, ㅆ, ㅈ, ㅊ, ㅌ, ㄹ/ 등이나 반홀소리 /j/가 선행할 때에는 음가가 높아진다.

- 보기: 1) 긴 /에:/ -> 베다 /'베:다/, 세다 /'세:다/,  
 2) 짧은 /에/ -> 메밀 /'메밀/, 삼베 /'삼베 /

요즘 일부 젊은 층에서는 /에/ 를 너무 열린 소리로 발음하여 /애/ 에 가깝게 내는 일이 있다. 이들은 계산 /계:산/ 을 /개산/ 과 같이 발음하며 셋집/셀:집/ 을 /쌔:집/ 과 같이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물론 잘못된 발음 습관이다.

### 3.1.3 훌훌소리 /애 / (= ɛ )

/애 /는 앞혀를 센입천장으로 향하여 올려서 내는 ‘앞혀, 반열린, 퍼진입술, 훌훌소리 (전설평순반개모음)’이다. 소리 환경에 따라 길고 세게 나는 /'애:/는 기본홀소리 [ɛ]보다 다소 낮고 후퇴하며, 짧고 세게 나는 /'애/는 기본홀소리 [ɛ] 보다 높아서, 약간 후퇴하는 일차 기본 모음 3번에 가깝고, 약한 /h/는 기본홀소리 [ɛ]보다 다소 높으며 상당히 후퇴한 홀소리이다. 반홀소리 /j/나 잇몸 또는 센입천장소리가 선행할 때는 음가가 상승한다.

- 보기: 1) 긴 /'애:/ -> 해방 /'해:방 /, 새장 /'새:장/,  
 2) 짧은 /애/ -> 매일 /'매일 /, 고개 /'고개 /

젊은 세대는 훌소리 /애/ 를 닫힌 소리 /에/ 로 잘못 발음하는 일이 많다. 이는 /애/

를 발음할 때에 입과 혀를 충분히 벌리고 발음하지 않아서 비롯되는 잘못이다. 따라서 이들은 해방을 /해:방/, 새장을 /세:장/ 으로 발음한다.

### 3.1.4 훌훌소리 /아/( = a )

/아 /는 가운혀를 열린 위치에 두고 내는 ‘가운혀, 열린, 퍼진입술, 훌훌소리(중설평순개모음)’이다. 소리환경에 따라 길고 세게 나는 /아:/는 기본 훌소리 [a]에서 전진하며, 짧고 세게 나는 /아 /는 기본 훌소리 [a]에서 다소 후퇴한 소리이고, 약한 /아 /는 기본 훌소리 4번과 5번의 중간에서 약간 중앙화된 소리로서 [a]와 비슷한 훌소리이다. 반훌소리 /j/나, 잇몸 또는 셴입천장소리가 선행할 때에는 음가가 전진한다.

- 보기: 1) 긴 /아:/ -> 안개 /'안:개 /, 많다 /만:타/,  
2) 짧은 /아/-> 밥 /'밥 /, 아가 /아'가 /

### 3.1.5 훌훌소리 /어/( = ㅏ 또는 ㅑ )

훌소리 /어 /는 음성 환경에 따라서 ‘가운혀, 반닫힌, 안등근, 훌훌소리’와 ‘뒤혀, 반열린, 퍼진입술, 훌훌소리(후설평순반개모음)’로 나므로 서로 상당히 다른 음가를 보인다. 길고 세게 나는 /어:/는 가운데훌소리 [e]에서 약간 후퇴하는 훌소리 또는 제 이차 기본 훌소리 7번에서 전진한 소리로 나며, 짧고 세게 나는 /어 /는 일차 기본 훌소리 [ɛ] 또는 이보다 다소 높거나 낮은 소리이며, 약한 /어 /는 /어: / 에 비해 낮고 더 후퇴한 소리, 즉 반열린 훌소리보다 다소 높은 위치에서 혀위치가 후퇴한 가운데 훌소리이다. 선행하는 소리가 반훌소리 /j/나 잇몸 또는 셴입천장 소리일 때는 /어 / 음가가 모두 상승 전진하는 경향이 있다.

- 보기: 1) 긴 /어:/ -> 전화 /'전:화 /, 선물 /'선:물/,  
2) 짧은 /어:/ -> 먹어 /'머거 /, 방법 /'방법 /

경상도 방언 사용자는 짧은 훌소리 /어/ 의 혀 위치가 대단히 높고 중앙화하여 표준말의 긴 /어:/ 소리나 /으 / 소리에 가깝게 소리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종석”을 /중속/으로, “정부”를 /증부/로 발음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를 교정하려면 턱을 많이 벌리고 혀 위치를 하강 후퇴 시켜야 한다.

## 3.1.6 훌훌소리 /으 / (= ㅜ )

훌소리 /으 /는 뒤혀를 여린입천장으로 향하여 올려서 내는 ‘뒤혀, 단힌, 퍼진입술, 훌훌소리(후설 평순 폐모음)’이다. 소리환경에 따라 길고 세게 나는 /’으:/는 2차 기본훌소리 8번 보다 약간 낮은 훌소리, 또는 이보다 다소 전진한 소리이며, 짧고 세게 나는 /’으/는 /’으:/보다 더 낮고 전진한 소리이며, 약한 /으 /는 /’으 /보다 더 낮고 전진한 소리이다. 앞에 온 소리가 잇몸 또는 센입천장 소리일 경우에는 음가가 중앙으로 전진한다.

- 보기: 1) 긴 /으:/ -> 음식 /’음:식 /, 그림 /’그:림/,  
 2) 짧은 /으/ -> 흙 /’흑 /, 연극 /’연:극 /,

경상도 방언 사용자는 훌소리 /으/ 를 발음할 때의 혀위치가 낮고 앞으로 전진하여 있어서 표준발음의 긴 /어:/ 에 가까운 소리로 내는 경향이 있다. 가령, “그림” 을 /거(:)림/ 으로, “승공” 을 /성:공/ 으로 내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를 교정하려면 혀를 후퇴 상승시키는 조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3.1.7 훌훌소리 /오/ (= o )

훌소리 /오 /는 뒤혀 여린 입천장으로 향하여 반열린과 반단힌의 사이로 올려서 내며 원순이 있는 ‘뒤혀, 반단힌, 둥근, 훌훌소리(후설원순반폐모음)’이다. 소리환경에 따라 소리값이 달라 지는데, 길고 세게 나는 /’오:/는 기본모음 7번 [o] 보다 다소 낮고 보통 정도의 원순을 수반하며, 짧고 세게 나는 /’ㅛ/는 기본 모음 [o]와 [ɨ]사이의 중간 훌소리로 /’오:/ 보다 더 낮고 원순도 더 약하며, 약하게 발음되는 /오/는 개인차가 많으나 대체로 기본훌소리 [ɨ]보다 약간 높고 전진해 있는 소리이며 원순이 아주 약한 소리이다. 반 훌소리 /j/나 잇몸 및 센입천장 소리가 앞에 올 때는 음가가 상승 전진한다.

- 보기: 1) 긴 /오:/ -> 오십 /’오:십 /, 조심 /’조:심/,  
 2) 짧은 /오/-> 봄 /’봄 /, 사고 /’사:고 /,

## 3.1.8 훌훌소리 /우 / (= u )

훌소리 /우 /는 뒤혀를 여린 입천장으로 향하여 단힌과 반단힌 사이로 올려서 내는 ‘뒤혀, 단힌, 둥근, 훌훌소리(후설원순폐모음)’이다. 소리환경에 따라 길고 세게 나는 /’

우:/는 기본 홀소리 [u]보다 약간 낮은 홀소리이거나 그 보다 다소 전진한 소리로서 입술 등글림과 긴장이 있으며, 짧고 세게 나는 /'우 /는 /'우:/보다 낮고 전진한 소리이며 입술등글림이 아주 약해서 거의 없다고 보아야할 경우도 있다. 반홀소리 /j/나 잇몸 및 센 입천장 소리가 선행할 때에는 음가가 전진하는 경향이 있다.

- 보기: 1) 긴 /우:/ -> 우측 /'우:측 /, 부자 /'부:자/,  
 2) 짧은 /우/ -> 운전 /'운전 /, 겨우 /'겨:우 /,

### 3.1.9 홀홀소리 /외/ (= ø )

홀소리 /외 /는 ‘앞혀, 단힌, 등근, 홀홀소리(전설원순폐모음)’ 인 홀홀소리로 나기도 하고 겹홀소리로 나기도 하는 특수한 성격의 홀소리이다. 앞혀에서 반단힌 입벌림으로 조음되는데, 홀홀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등근 입술의 홀소리이고, 겹홀소리로 날 때에는 [we]와 같이 전사할 수 있다. 즉, 전이음인 반홀소리 [w]와 홀홀소리 [e]가 결합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외/ 를 홀홀소리로 내는 이들은 대체로 일부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통은 모두 겹홀소리(이중모음)로 발음한다. 또한 전라도 방언에서는 /외/ 가 일반적으로 홀홀소리로 난다.

- 보기: 1) 홀홀소리 /외/ -> 외상 /외상/, 회계 /회계/,  
 2) 겹홀소리 /웨/ -> 외무 /'웨:무/, 되었다 /웨언따 /

### 3.2. 겹홀소리(이중모음)

홀소리를 발음할 때 처음과 끝의 소리값에 차이가 없고 일정한 소리값을 지나는 홀소리를 ‘홀홀소리’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말의 [야, 야, 요, 유 ], [와, 워, 왜, 웨 ], 그리고 영어의 [ei, au, iə] 따위처럼 시작과 끝의 소리값이 다른 홀소리들이 있다. 이처럼 시작과 끝의 소리값이 다른 홀소리, 즉 조음이 모음 사각도의 한 위치에서 시작되어 어떤 다른 위치에서 끝나는 홀소리를 겹홀소리 (이중모음:diphthong)라고 부른다.

겹홀소리는 홀홀소리와 같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며 ‘음절핵’의 구실을 한다. 즉 하나의 겹홀소리는 하나의 음절을 이룰 뿐이다. 대개 겹홀소리는 처음의 요소와 끝의 요소가 서로 같은 음량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의 한 쪽이 우세하기 마련이다. 한국어의

겹홀소리는 시작하는 소리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3.2.1 /이/ ( j ) - 겹홀소리:

/이/ - 겹홀소리는 선입천장 반홀소리 /이/[j] 로 시작되는 겹홀소리를 말한다. /이/-겹홀소리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예/ [je] : 예산, 예수, 혜택,

/애/ [jɛ] : 애들아,

/야/ [ja] : 야자, 야구, 오냐,

/여/ [jɪ] : 여름, 여자, 겨를, 버

/요/ [jo] : 요, 요술, 교육, 효자,

/유/ [ju] : 유자, 우유, 규칙, 휴가

홀홀소리 /에/ 와 /애/ 가 구별되지 않는 것과 같이 겹홀소리 /예/ 와 /애/ 가 혼동하는 일도 적지 않다. 또한 겹홀소리 /여/ 를 홀홀소리 /에/ 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주로 경상도 방언 사용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기: 경제 - > /경제/,

형제 - > /형제/

### 3.2.2 /우/ [w] - 겹홀소리

/우/- 겹홀소리는 여린입천장 반홀소리 /우/ [w] 로 시작되는 겹홀소리를 말한다. /우/-겹홀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위/ [wi] : 위아래, 위장, 위선

/웨/ [we] : 외국, 웨도, 회사

/왜/ [wɛ] : 왜요, 왜, 돼지,

/와/ [wa] : 와라, 완전, 화랑,

/워/ [wʌ] : 원통, 소원, 권총,

/우/ - 겹홀소리에서 첫 소리를 생략하여 훌홀소리로 잘못 발음하는 일이 많다. 이는 주로 경상도 방언 사용자의 발음에서 들어나는 현상이다.

보기: /위/ -> /이/  
/과일/ -> /가일/

### 3.2.3 /의/ - 겹홀소리

/의/ 겹홀소리는 홀소리 /으/ 에서 시작하여 /이/ 로 이동하는 특이한 겹홀소리이다. 겹홀소리 /의/ 는 주로 낱말의 첫자리에서 실현된다.

보기: 의사 /의사/, 의회 /의회/, 의정부 /의정부/

그런데 현대 표준발음에서 /의/ 는 겹홀소리로 날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훌홀소리로도 난다.

#### 3.2.3.1 /의/ -> /이/

/의/ 가 낱말의 첫자리 이외의 위치에서 나타날 때는 훌홀소리 /이/ 로 나는 것이 보통이다.

보기: 주의 /주이/, 경의 /경이/, 민주주의 /민주주이/

#### 3.2.3.2 /의/ -> /에 /

토씨로 쓰이는 “의”는 현대 표준말에서 훌홀소리 /에/ 로 나는 것이 보통이다.

보기: 나의 집 /나에 집/, 고향의 봄 /고향에 봄/